

2016 년 8 월 28 일(주일) 찾아오신 예수님(3) “위로부터 오는 생명의 주”(요 2:23-3:15)

<도입>

니고데모 – 바리새인으로서는 종교 지도자/학자, 국가 최고 기관인 산헤드린 70 인에 속한 - 가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삶을 시작할 때 가장 핵심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듭남에 대해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1] 사람 속을 아시는 예수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배경을 보면(2:23~) 그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한 표적(= 진리를 가르치려는 목적이 담긴 초자연적 사건)을 보고 영생에 관한 궁금증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로 보시지 않았습니다(의탁하지 않으셨다는 뜻). 그리고 니고데모 속에 있는 질문을 아십니다(25 절).

그가 영생에 대한 질문을 갖고 밤에 온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와 환전상들을 뒤집어 엮은 소동의 장본인이었기 때문에 당국은 적대적인 인물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을 방문하는 것은 자기자리에서 많은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습니다.

[2] 영생을 얻으려면...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남 = (1) 위로부터 + (2) 다시 태어남 이라는 뜻.

4 절.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또 태어난다는 말입니까?

5 절. 거듭남은 ‘물과 성령’(=성령)으로 나는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 “아멘 아멘” 정말 믿어야 할 확고한 진리를 말씀하실 때 강조하시는 어법입니다.

6 절. 육으로 난 것은 육, 영으로 난 것은 영. ➔ 자연과 세상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뜻. 육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원리적 현상적으로 규명이 가능합니다. 육은 부정적 의미가 아니라, 인간 차원임을 말하는 것입니다(바울의 육 개념과는 구별됨).

육의 차원과 대조로 영의 차원에서 새로 태어나는 거듭남의 역사가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8 절.** 비유로 말하면 바람의 역사와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누구나 소리를 듣지만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데 성령으로 태어나는 사건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초자연적 역사입니다. 즉 영의 차원이 땅의 차원으로 임한다는 뜻입니다(1:4 참고 빛 ➔ 어둠).

거듭난다는 말은 사람(인격)이 완전해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씨앗 형태로** 인격과 마음의 발에 받은 상태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수준에 이르기까지 걸어가야 할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세우신 목표가 뭔지를 모를 뿐 아니라 신앙의 여정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씨앗이 없이 식물이 자란다는 것과 같습니다.

비유로 말하면 새로 입학한 학교의 학생 신분을 새로 얻은 것과 같습니다. 입학하면 학교가 요구하는 수준에 이르기 위해 졸업까지 여러 학기 동안 건강하게 성실히 학업에 연마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거듭남 후의 인생 여정에서도 온전한 믿음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공급과 훈련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3] 거듭남의 축복

니고데모가 인간의 삶에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땅의 일은 두 가지입니다.

(1) 거듭남. 이 사건은 본질적(신적) 생명이 하늘에 속한 것이지만 그것이 육신 속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땅의 일이 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늘 생명의 씨앗을 받는 일이므로 얼마동안 모를 수는 있습니다.

(2) 거듭남 후에 따라오는 축복이 이 땅에서 일어날 때는 그 누구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이것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듭남에 따라오는 축복은 무엇인가요? 큰 두 줄기가 있습니다.

첫째, 참된 사랑의 **영성**이 길러집니다. 요한복음 요절은 3:16; 13:34-35 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알고 행함이 거듭남의 증거요 축복입니다.

둘째, 예수의 사랑을 배워 참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향하지 않거나 바르게 이루지 못하는 사랑은 방향을 잃은 사랑입니다. 성경적 사랑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기독교 공동체"란 장차 하나님 앞에 세워질 큰 백성의 무리, 즉, universal church(우주적, 보편적 교회)를 향하여 함께 걸어가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특징인 두 사람 이상의 모임을 말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진실하게 사랑하기를 작심하고, 끝까지 사랑할 때, 그런 사랑만이 공동체를 이루는 진정한 힘이 됩니다. 갈등과 알력이 없다고 해서 좋은 공동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맺음>

거듭남에 대한 중요성조차 희미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위로부터 다시 태어남으로 생명을 얻고 그 축복이 우리 삶의 중심에서 누려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당신이 이미 거듭난 분이라면 자신의 삶에서 이것이 어떻게 중요한지 말씀해 주세요. 만일 거듭남에 대해 의심이 간다면 당신은 거듭나고 싶습니까?
2. 니고데모는 표적을 보고 믿음을 가졌지만 아직 거듭남을 체험하거나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니고데모 수준에 오래 머문다면 우리 자신에게 결코 이롭지 않습니다. 거듭났다면 어떤 축복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3. 기독교 신앙에서 거듭남은 개인적이지만 믿음의 여정은 공동체적입니다.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매우 큰 축복입니다. 공동체가 왜 축복이 되는지 말씀을 나누어 봅시다.